

미래 신산업 담은 금융중심지 새지도 그린다

전북도, 연기금·자산운용 등 미래 수요 뒷받침하는 금융허브 발전 전략 마련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디지털 금융모델을 비롯해 전북의 신산업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북 금융허브 종합개발 계획 수립'

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천세창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추

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용역의 수행기관은 2021년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과업은 △글로벌 금융환경 여

건 분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 검토, △전북 금융허브의 주력 부문 설정 및 발전전략 도출, △전북 금융허브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기대효과 등이며,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포럼을 별도로 구성·운영(분기별 1회 이상)하여 연구용역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최신 글로벌 금융·경제환경과 전북 신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허브 발전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정부계획 반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도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협약,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 추가 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금융산업 육성 특례 반영 등을 통해 금융도시 조성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완성도 있는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내 노로바이러스 검출 농도 증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최근 도내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농도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주 3회 전주, 임실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2곳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32종 병원체의 증가 감소 경향을 파악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데이터 분석 결과, 45주차(11월 6일~11월 12일) 대비 46~47주차(11월 13일~11월 22일)

평균 검출 농도가 전주는 4배, 임실은 7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11월~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식중독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의 구토물 및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소량의 바이러스 노출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재료 등을 충분히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김재훈 기자



정읍지역 한 축산농가의 소에 렘피스킨병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도, 연안 자원 회복 위해 '바지락' 종자 400만 마리 방류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전망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수산 자원 증강과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통한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8일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 직접 생산한 바지락 종자 40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생산된 바지락 종자는 국내 산 어미를 이용하여 5월부터 수정란 채란 후 부화한 유생을 약 6개월 동안

사육 관리하여, 0.5cm이상까지 성장시킨 건강한 바지락으로 도내 연안 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지락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도의 바지락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2022년도 기준 생산량 1만6,162톤, 생산금액 480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71.1%를 차지해 전국 최대 바지락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다.(통계청 어업생

산동향조사 참조)

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바지락 종자를 생산해 총 4,540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방류해, 전국 최대 방류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올해 준공된 ICT를 활용한 패류 종자 대량생산 시설의 시험가동(1~2년) 및 시험연구를 거쳐 도내 해역에 맞는 패류 품종(바지락, 참돔치 등)을 순차적으로 대량생산해 의

국산 패류 종자 수입대체 및 패류 양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서재희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의 지속적인 패류 종자 방류를 통해 도내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준공된 패류 종자 대량생산 시설을 이용해 도내 환경에 맞는 품종의 대량 생산 연구를 통해 패류 양식산업 중심지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렘피스킨 확산세 꺾였다

11일째 추가확진 '無' ...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 주된 이유

도내에 퍼지던 렘피스킨이 주춤한 모양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던 렘피스킨은 현재 전북에서 10여일이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창군 해리면의 한우농가에서 렘피스킨 확진이후 전북지역 모든 농가에서 렘피스킨이 11일째 미발생했다.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가에서 지난달 25일 첫 발생 이후 고창군에서만 12건, 임실군에서 1건이 발생했다.

렘피스킨 발생으로 총 14개의 소 농장에서 1049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특히 전북은 고창을 중심으로 렘피스킨이 확산해 방역당국은 고창을 고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렘피스킨이 11일째 미발생하자 지난 27일 고창군은 고위험지역이 해제됐다. 렘피스킨 확산세가 주춤한 이유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형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지난 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이 지나 소의 면역이 형성됐다고 봤다.

여기에 전북도 방역당국의 선별적 예찰로 인한 렘피스킨 의심 소에 대한 조기발견도 한 몫했다.

전북도는 백신접종 이후 렘피스킨 발생능가 주변으로 임상예찰을 활성화했다. 그 결과 백신접종을 마친 농가에서도 렘피스킨이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확진된 소들은 모두 백신접종 이전에 감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뚜렷하게 나왔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발 빠른 임상예찰은 렘피스킨 바이러스 확산 저지의 효과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단기간 많은 확진사례가 나왔던 것은 적극적인 임상예찰로 인한 조기 발견 때문"이라며 "백신 항체가 형성되고 확진 소들을 사전에 발견해 살처분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도, 여성폭력 추방주간 연합캠페인

도경찰청·피해자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함께 참여

전북도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8일 전북대 구정문앞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전라북도와 경찰청,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와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해 여성폭력 추방주간 슬로건 제창과 폭력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덕진공원 및 전북대 인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과 스톱킹 및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폭력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부를 통해 폭력예방의 중요성과 대처법,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최근 가정폭력, 스톱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